

대림 제 2 주일

기도서 P. 213 B해

제1독서(이 사 40,1-5. 9-11)

제2독서(베드루 3, 8-14)

복 음(마르코 1, 1-8)

숲 정 이

발행인	범 석 규
인쇄인	이 수 현
주간	조 성 호
편집	한 상 갑

편집실 1 전주서서노송동560의6
전주교구청 내 (전화 5098)



‘네 꼬라지를 알라’

현 유 복 신부

오늘날 우리의 주위에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야생마와 같이 날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자꾸만 느낍니다.

올바른 자신의 처지를 망각하고 유행계단을 접없이 오르는 사람들이나 철없는 아이가 과도(果刀)를 휘두르는 꼬락서니를 볼 때마다 위험을 마구 느끼며 안스러워 집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일찌기 경고한 옛철인(哲人) 소크라테스의 말을 오늘날 젊은이들은 “네 꼬라지를 알라”고 비꼬아 말합니다. 이 말을 바꾸어 이해하자면 정말 두고 봐 줄래야 하는 것들이 뿔뿔사나워 더이상 못봐 주겠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요즘 사람들이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허풍을 떨며 날뛰면 이런 말이 젊은 이들의 가슴에서 우러나왔겠습니까? 아마 누구를 두고 한 말은 아니더라도 나 자신에 비추어 반성해 봐야 하겠읍니다.

네일 모레이면 우리는 우리의 인권을 보호해 주실 의 원님들을 우리의 손으로 뽑게 되는 날입니다. 너무나 오랜만에 이나라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하게 되는가 싶어 조금은 마음 설레이지만, 어차피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포기해야 할 중대한 자리이기에 조용한 마음으로 광야에서 울려 퍼지던 세례자 요한의 절규에 귀를 모아 봅시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죄를 용서 받을 것이다.” 회개는 과거의 잘못을 아파 뉘우침으로서 더럽혀진 마음을 깨끗하게 세탁한다는 의미보다는 지금 자신의 잘못 들어선 길을 철저히 포기하고 올바른 길로 방향을 전환시킨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불욕이나 권세욕, 아집이나 체면 따위로 뻗뻗해진 목덜미를 돌려 사랑과 정의 자체이신 하느님께로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느님을 알아 모실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참된 모습을 재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비참하게도 누구나 다 더럽고 추한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가증스러운 것은 그렇게 더럽고 추한 자신의 모습을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 모습을 거짓과 허위의 가면으로 위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죄악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싫어 하듯이 위장술에 능한 이들은 진실과 정의를 거부하고 거짓과 폭력에 타협하며 권세에 아부합니다.

크리스찬은 하느님의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베드루3, 13)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한잔의 딱 걸리잖으로 자신의 귀중한 양심을 팔아 넘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거듭 거듭 태어나는 회개의 행위를 통하여 빛의 자녀로서의 본 모습을 되찾아야 하겠읍니다.

12월 12일, 그날은 우리에게 한치의 부끄러움이 없는 하루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전주교구청>



늘 깨어 있어라(2)

—벌어 버리겠다.

「나는 네가 한 일을 잘 알고 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차라리 네가 차든지, 아니면 뜨겁든지 하다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러나 너는 이렇게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미지근하기만 하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요한 묵시록 3, 15-16)

대림절이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서는 현실적인 새로운 기다림이 있다. 인간을 작게 만드는 요소들이 제거되는 새로운 좋은 사회환경을 기다리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인간을 작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시킬 수 있는 참된 우리의 대변자를 뽑으려는 시기에 있다. 하지만 우리를 우롱하는, 차지도 뜨겁지도 못한 지도자가 있었음을 우리는 6년동안 보아왔다. 이리는 이리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 않는다. -나를 해칠지도 모르니까. 그러나 양의 탈을 쓴 이리는 훨씬 더 악독한 것이다. 웃으며 다가오는 그 모습은 멧꾼의 뇌물에 개침을 흘리며 다가서는 뻔뻔스러움이 있다.

멧꾼의 선거뇌물에 양심을 팔지 말자. 주님이 오시는 날 무어라고 변명하겠는가? 실상(實象)을 보이지 못하는 베일은 벗겨져야 한다. 그 베일 뒤의 음모와 저의를 보아야 한다. 양다리 걸친 박쥐는 우리에게 이로울게 없다. 거미줄과 먼지에 뒤범벅된 음산한 분위기가 우리를 짓누르는데, 더 이상 박쥐는 날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기다리는 오늘 우리의 자세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마르코 2, 22)하듯 새로운 시대에는 양심있는 우리의 대변자가 나와야 하겠다. 복음은 철저한 결단을 요구한다. 복음에 어긋나는 현실은 과단성있게 수습되어야 한다. 이것은 '최소한의 우리 그리스도인 양심인 것이다. <曹 神父>

숲 정 이 산 책



돈 많이 쓰는 후보는
짚지 맙시다!



全州 敎區 平協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제4차 정기총회

전주교구 평신도 사도적 협의회(敎區平協)의 제4차 정기총회가 지난 3일 가톨릭센터 회의실에서 있었다.

모든 본당들이 신년도 예산편성 등으로 바빴겠지만, 1년전에 만들어진 78년도 사무교서의 월중 행사계획에도 명시되었고 교구의 12월 행사표에도 예고된 행사였는데 본당 출석률은 아주 저조하였다. (16/38...44%) 그러나 교구단위 단체의 출석률은 좋았다. (7/8...88%)

○출석 본당...김제, 부안, 수유, 신태인, 주현동, 창인동, 황등, 노송동, 덕진, 북자, 서학동, 전동, 중앙, 파티마, 무주, 상관

○출석 단체...교리교사 연합회, 노동청년회, 농민회, 대학생 연합회, 레지오 마리에 꼬미시움, 약사회, 프란치스코, 재속 형제회.

□ 1978년도의 사업

① 순교자 현양사업...순교자 현양대회가 예년과 달리 보다 다양하고 알차게 이루어 졌다. 글짓기, 응원대회, 성가 경연대회, 성심여고의 순교 무용 발표, 기념케난트 제작등이 그것이다. 현양대회의 총수입은 1,361,866원이고 지출은 943,915원이었다. 특별헌금을 해준 독일 마인츠 교구의 마이어 신부님께 감사드린다. 김진소 신부님의 노력으로 순교성지 안내 유인물 제2판이 천연색 사진을 곁들여 제작하기도 했다.

② 교회 공동체의 유대강화...다시 기억하기도 싫은 7·6사태시에 평협은 <성명서> <요구서> <호소문>을 발표해서 평협의 입장을 알렸고, 두차례의 철야기도회를 가져 800여명의 교우들이 참여한바 있다. 특히 교산본당은 공소교우들까지 참여하여 250여명이나 철야기도를 했다.

산하단체의 확인지도는 농민회만 실시하여 그 성적이 부진하였다. 그러나 교구 성가대 조직을 위한 전주 시내 합동 성가연습의 성과가 커 전주 시내 청년 연합 성가대가 발표되기도 했다.

처음으로 시도된 교구연감이 216페이지의 부피로 제작되어 각 본당의 역사찾기에 공헌한 바가 크다. 신년교례회에도 150여명이나 참석했었다.

③ 신자 재교육...평협의 계획에 의해서는 실시된 바가 전연 없다. 교육이 등한히 된 점은 많은 연구와 노력의 필요성을 남겨주었다.

④ 평신도 지도자 발굴 및 양성...바람이었던 교우회와 의사회 조직은 못 이루어졌지만, 의사의 현황이 파악되었다. 교구내의 신자 의사는 25명으로 밝혀졌다.

지도자 교육으로는 성가지도자와 본당지도자 및 단체 간부의 교육이 한차례씩 있었다. 전국 평협이 주관하는 두차례의 연수회에 7명이 참석하여 교육을 받기도 했다

⑤ 홍보사업...성서 및 교회출판물 보급 운동은 언제까지라도 해야 할 우리의 사업인데, 비교적 전주교구 신자들의 교회출판물에 대한 관심과 정성이 부족한것 같다.

교구보 순정이는 그 대금이 85만원이나 밀려있고 우송료가 10여만원이 밀려있다. 각 본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아쉽다.

⑥ 사제양성 후원사업...사순절 성금운동이 77년도에 비해 121%(540여만원)로 예상 성과에는 미달이다.

⑦ 기타...전국 평협 주최 응원대회에 3명이 참가하여 유명규(파티마 성당)군이 중등부 우수상을 받았다.

□ 1979년도 행사예정

① 신년교례회...1월 1일 오전 11시30분, 회비 1천원, 참석자에게는 간단한 중식과 기념품 (79년도 신자수절)을 나누어 줌.

② 사도회임원 연수회...1차(1, 17-19), 2차(2. 1-3) 7. 대상-사도회장단 2명, 선교·전례·봉사·재경위원장 1명씩(회장단 1명은 본당의 유능한 지도자도 가함. 분과위원장도 사정이 있으면 위원도 가함)

나. 각 본당은 위의 대상자를 1차에 3명씩 참여시킬 것.

다. 회비는 거리를 감안하여 지역별로 산정함.

③ 평협 산하 단체 간부교육...2월 3~4일.

7. 대상...교구단위 단체 임원 3명씩(회장단 1명은 반드시 참가할 것)

나. 회비...1인당 1,000원씩

④ 성가지도자 교육...2월 10~11일.

7. 대상: 각 본당 성가대 활동자로 본당신부의 추천을 받은 2명

나. 회비...거리를 감안하여 지역별로 산정함

⑤ 신앙 대강좌...6월 6일

각 본당의 자체교육 (1)(2)를 마무리짓는 특강으로 젊고 유능한 교우들이 다수 참가되어야 하겠음.

⑥ 순교자 현양대회...9월 23일

7. 지구별 예선...성가경연(8월5일), 응원(8월15일)

나. 본선...성가 및 응원(8월26일), 그리기(9월2일)

⑦ 제5차 정기총회...12월 9일

⑧ 사제양성 후원사업...사순절동안

⑨ 전국 평협의 행사

7. 신앙대학...제2회(3. 8~11), 제3회(10. 6~9)

나. 제2회 전국 응원대회...10월 14일

전화 줌... 여러분이 아껴 주시는 순정이 편집실에 전화가 없습니다. 고충이 큼니다. 본당이나 단체, 개인별 성금으로 편집실에 전화한 대 안 놓아 주실래요. 천원도, 5천원도, 만원도 좋습니다. -순정이 편집실

수입 악기 시판 개시!

취급 품목 { 피아노: ① 화려한 선율의 결정체 GORS & KALLMANN(독일) ② 122년의 전통과 우아한 품위의 WURLITZER(미국) 전자올겐: 전자올겐의 대명사 HAMMOND(미국)

서진 피아노 전주 대리점 전화 ②4690

(구 삼남극장 사거리)

가톨릭 행사 관계자 곳곳에서 탄압당해

가톨릭 행사 관계자 등에 대한 당국의 구속 등 종교탄압 조치가 날로 늘고 있어 한국 가톨릭 교회의 비상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춘천교구 가톨릭 농민회 소속 정성현·유남선·박명근 형제들이 농민회 관계 일로, 정인숙·이종각 자매는 가톨릭 노동청년회 관계 일로 현재 재판에 계류중에 있으며, 최근에는 전국평협 감사 유진훈 형제가 농민회 주최 쌀생산자 대회와 관련 20일간 구류를 살고 있다. 이밖에도 정부는 교회주보 발행의 중지를 요구해온바 있다.

유진훈 형제는 지난 11월 16·17양일간 대전 가톨릭 문화관에서 가톨릭 농민회 주최 78년도 쌀생산자대회 및 감사제를 주관했는데, 이 대회장에 들어온 경찰관 6명을 실력으로 퇴장시킨바 있다.

대회가 끝난 다음날인 18일 경찰은 유형제가 경영하는 인쇄소 직공 1명을 자전거를 길에 세워놓았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연행했다. 이를 뒤늦게 안 유형제가 대전 경찰서에 이의 부당성을 항의하자 경찰은 유형제를 먼저 감금시킨후 가택수색끝에 인쇄소에서 사용하는 휘발류 반병(1ℓ)을 압수, 경범죄 처벌법 제1조 30호를 적용하여 20일간 구류처분을 했다.

대전 경찰서 정보과 한 간부는 구류처분 소식을 듣고 유형제 댁에 온 한 친척을 밖으로 불러내 "20일구류 좋아하지 말라! 일생이라도 살릴 수 있다. 다음은 당신 차례다"라고 폭언, 농민회 행사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인상을 질게 했다. 경찰은 이전에도 유형제를 이유없이 미행, 감시, 연행하는 일이 빈번하여 전국평협 상임위에서 이를 항의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참조...윤정이 314호, 11월 5일자 전국평협 상임위 성명서)

□ 경범죄 처벌법 제1조 30호...상당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고 건물, 삼림, 기타 불발기 쉬운 물건의 부근에서 불을 피우거나 또는 휘발류 기타 인화하기 쉬운 물건의 근처에서 화기를 사용한다.

건의문

1978년 11월 5일 대전에서 개최된 한국 천주교 평신도사도직 협의회 상임위원회는 최근 천주교 각 교구 및 본당에서 발행하는 주보 발행증지 통요 문공부 장관의 경고에 관하여 그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며 그 철회를 건의하는 바입니다.

1. 교회 주보의 발행을 일반 언론으로 간주하여 규제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장된 신성 불가침의 종교자유를 탄압하는 명백한 처사라고 사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주보는 신앙고백 및 복음전포 그리고 강론의 연장이며, 따라서 이는 신문 통신 등의 등록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러한 처사는 일제 식민지 통치하에서도 없었던 일입니다.

1. 이상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그 부당성이 시정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상임위원회

(이 면의 기사는 서울 대교구 평협이 발행하는 가톨릭 서울 11호에서 옮겼음)

요심이 (280) 김병오

돈이나 섬랑
내복등을 갖어
오면 많이반아
먹고 쓰시오

이런때
부자사람것
안먹으면
언제먹겠오

너는 라락
선거하자는
거냐?

그러나 투표는
양심과 신앙심을
바탕으로
찍어줍시다!

결 (축) 훈

이옥련씨 장남 김영렬(요셉)
김유순씨 사녀 박복경(루시아)
일시: 78. 12. 17 12시
장소: 전주 중앙성당
주례: 서용복 신부님

◆결운기·분무기·전자동 탈곡기
트랙타·각종 농기구일절 도산매

대동공업(주)전북총판

대표 오 승 엽(바오로)

이리시 평화동 20번지

☎ 9000, 9001, 9002, 9003번

개업 안내

시대 중앙등에서, 재단 7년 경력으로
교우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하
기 장소에 개업하였습니다.
앞으로 교우여러분들의 많은 성원
과 지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 용 희 (가브리엘)

☎ 2-6222 (전북신문 사거리)

에이스 양복점

◇ 가정용 목욕탕, 온수,
난방 시설 및 수리

한국 流 온수 온돌 공사

(정읍대리점)

정읍전화 주간 2719번 야간 4195번

대표: 교아오스님

※교우분들께서는 1할을 할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최신형 전세버스 운영

□ 기타 국내판

□ 호도 관광 지정업체

③ 4000 · ④ 09994

삼남관광여행사

대표이사: 한 상 오

관광과장: 범 석 배(띠오)

금·은·보석·고급시계는
전주 남문역 교우집으로 오세요

미성당시계점

장 금 태(방지거)

☎ 2-3301 (자택 2-8548)

롯데·해태·유명제과 메이커 대리점
※교우님들에게 특별봉사하겠습니다

식료·과자류 도산매

이안(李安)상회

□관선동 파출소 옆(舊·유안상회)

☎ (商)②2681 · (自)②9724

이 영 문(안드레아)

제 4 지구 각 본당 소식

- 남성 제12차 꾸르실료...79년 1월 4<목>~7<일>
 - ① 자격...30세 이상의 신심이 두터운 교우로 3박 4일의 과정을 마칠 수 있는 전강이 있어야 함.
 - ② 신청마감...12월 20일<수>, 본당 신부님들의 협조바람.
 - ③ 수강 희망자는 본당 신부님께 상의하시어 추천 받으시기 바랍니다(회비...10,000원)
 - 여성 제 5차 꾸르실리스타 동창회...17일<일> 오전 11시, 가톨릭센터, 회비...1,500원
 - 젊은이를 위한 대림절(待臨節) 묵상회...15일<금> 오후 7시반, 가톨릭센터, 지도-범석규 신부
- 동일방직에서 해고된 근로자를 위한 성금...군산 둔율동 본당의 어떤 교우 5,000원
상지원 공소 돕기 성금...진진상(全眞常) 16,500원, 전주시청 로사리오 회원들 20,000원, 약사회 5만원
- 감사합니다
본인의 회갑에 거꾸교적으로 주교님과 사제단, 수녀님들, 평신도들이 기도해 주시고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생을 미려이나마 다 바칠 각오입니다. -상관 이상호 신부



(중앙)

주임 신부 서 용 복
보좌 신부 점 승 현
사도 회장 이 범 배
석

전화 ③3651
3874

- 꾸리아: 10일<일> 오후 2시(강당)
 - 환자영성체: 13일<수> 오후 2시
 - 영세자 합동교리: 11일<월> - 15일<금>
시간: 오전 10시, 오후 8시(강당)
 - 영세식: 16일<토> 오후 7시 30분 대부, 대모 참석바람
 - 성탄 판공성사 일절
19일<화>-금암동, 인후동, 20일<수>-전북동, 경원동, 21일<목>-서노중동, 중노중동, 22일<금>-교사동, 태평동, 23일<토>-학석, 기타
 - 사도회 임시총회: 17일<일> 공식미사 후 구역장, 반장, 각 신심단체장
 - 전례담당
10일: 복사-신동진, 이강호, 해설-양학도
17일: 복사-엄관섭, 김낙준, 해설-임주택
- 지난주 불헌금: 170,075원

(노송동)

주임 신부 공 아 영
보좌 신부 권 용 동
사도 회장 김 성 립

전화 ② 7032

- 성모회 릴레회: 오늘 공식미사 후
 - 신우회 릴레회: 오늘 저녁미사 후
 - 성탄절 성가연습: 내일부터 매일 저녁 7시반~9시
 - 성미운동 전개: 성탄절과, 년말, 년시에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 성미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애령회 새입원 선술: 회장-전진담, 부회장-전옥진, 이경은, 총무-최홍엽, 재무-박규신, 감사-김재철, 장성복, 이상 여러분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 본당 판공성사 일절: 유아동-12월 11일 유아동에서 인후동-13~14일(2일간), 남노중동-15일.
 - 환자봉성체: 남노중동, 중노 1가는 11일 오전중에, 중노 2가, 인후동, 유아동은 14일 오전중에 환자를 모신 가정에서는 본당에 알려 주세요
- 지난주 불헌금: 69,985원

(덕진)

주임 신부 서 석 기
보좌 신부 강 덕 행
사도 회장 유 제 상

전화 ②2182

- 젊은이 공동체 묵상회
12월 12일<화> 오전 10~오후 5시 30분(사제관회의실)
필기도구, 미사도구, 500원 지참
본당 젊은이 참석 바람(예비자 포함)-J.U.C주최-
 - 사도회 확대회의: 다음주 공식미사 후
79년 예산집의, 공소, 구역장, 반장 참석 바람
 - 대학생회 회원: 월요일 5시 30분 필히 참석 요람
 - 본당 판공일절
18·19일-금암동, 송전동, 20·21일-덕진동, 팔복동, 22·23일-누락자, 기타, 24일 판공없음
- 지난주 불헌금: 96,705원

(복자)

주임 신부 김 종 택
보좌 신부 조 성 호

전화 ②5238

- 사도회 확대회: 오늘 저녁미사 후
사도회 입원·고문·감사·반회장 각 신심단체 임원 참석 바람(결산 및 예산집의)
- 성우회 정기총회: 오늘 공식미사 후

- 1일교장: 오늘-이분님(모니카)
- 지난주 불헌금: 197,200원

(서학동)

주임 신부 오 현 택
보좌 신부 박 장 춘

전화 ②2276

- 선교주일: 10시미사 후 L, M 간부회 있음
 - 성탄 영세자 특별교리: 매일 밤 8시에 있음
 - 사도회 상임위원회: 17일 10시미사 후 있음
 - 감사합니다: 사제관 보수공사 완공으로 무사히 이사 하였습니다
 - 성탄준비 성가연습: 매일 밤 7시 30분에 있음
 - 어머니회 상품값 미납자는 속히 완납을 바랍니다
- 지난주 불헌금: 39,000원

(윤정미)

주임 신부 이 대 권
보좌 신부 이 강 노

전화 ②7366

- 누깁다 유치원 겨울 방학식: 오늘
(누깁다 유치원 전화 안내 ③ 9567)
 - 영세식: 12월 17일
 - 79년도 불헌금을 신입받음시다(각 세대주 신입바람)
 - 금주 성령세미나: 12월 15일 오후 7시
 - 금주 판공일절: 12월 11일-전북 2동 7반, 12일-전북 2동 6반, 13일-전북 2동 4반, 14일-전북 2동 3반
- 지난주 불헌금: 112,845원

(전동)

주임 신부 김 환 철
보좌 신부 이 순 성
사도 회장 유 석 중

전화 ③3222

- 장우회: 총회(저녁 7시미사 후)
 - 자도회: 10시미사 후
 - 첫 영성체: 12월 24일(교리: 매일 오후 4시)
 - 영세식: 12월 24일 밤 미사전
매일교리(11일 밤 7시 30분부터)
 - 판공성사: 16~23일까지
(※ 16일 오후 2시: 국·중·교생)
 - 셋별 월 700차: 시범 셀
 - 사도회 의결: 79년도 예산 40%이상(교구방정), 78년도 결산보고(전체신자 차후), 유공자 선정 포창 79년도 월력 제작 방정, 재정부장-정금배, 차장-유종현, 성탄자선-구역별 성미운동
- 지난주 불헌금: 158,920원 교무금: 115,600원

(파티마)

주임 신부 문 정 현
보좌 신부 사도 회장 채 수 현

전화 ②0915

- 가정방문: 12월 6일부터
 - 판공성사: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판공성사를 돕는다. 가정방문시 교회를 불리고 성사료 나누어 드립니다
 - 수녀원 살림마련: 은인께 감사합니다
전귀관-전기다리미, 안테레사-쟁이, 송마리아-석유곤로, 송루시아-석유곤로, 송모니카-일개미, 백알비나-분대기, 윤가빌로-김동, 김안나-정통, 오해나-식당찬장, 하성운, 성아가다, 구발라라-정시 30개, 박비오-난로, 박벨라맷다-5천원, 김안나-3천원, 소안나-1천5백원
수녀님은 12월 15일에 오십니다
 - 교무금 성탄전까지...
김종준(4만원), 양영숙(3천원), 박기문(2천원), 박수홍·이현자(각5천원), 박경남(6천원), 권정자(5백)
 - 바로로회: 주일 공식미사 후(청장년 많은 모임바람)
- 지난주 불헌금: 34,290원